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esent status and curriculum reform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in Korea

박 일 종 (Il-Jong Park)**

〈 목 차 〉

- I. 현황
- II. 연구방법
 - 1. 설문대상자
 - 2. 설문지와 통계분석방법
- III. 영역의 분류
 - 1. 도서관학분야
 - 2. 정보학분야
 - 3. 서지학과 기타분야
- IV. 기록보존 및 사서교사 관련과목
 - 1. 기록관리사 및 기록물관리법
 - 2. 기록물관리 교육과정 및 필요성
 - 3. 사서교사 자격증
- V. 계량적 연구의 분석결과
 - 1. 발견사항
 - 2. 종합적 결론 및 점언
- VI. 제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질적인 서술방식과 계량적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질적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현황에 근거한 문헌정보학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서술하고, 기록보존 관련과목과 사서교사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계량적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는 먼저 문헌정보학을 3개분야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과 기타분야), 15개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준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구경북지역 내 도서관 현장근무자 및 재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6개의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러 종류의 기술적, 추리적 통계분석방법과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한 계량적 연구의 주요발견사항을 함께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 및 교육환경에 맞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개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program in Korea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its present status and problems, and its curriculum reformation. For the purpose, both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have been performed. Not only the recent trend of LIS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and its present status, but government document related subjects and school librarian related ones also have been described in the qualitative study.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the curriculum reformation for LIS, the author has separated LIS program into three major areas (Library science, Information science, and Bibliology & the others) and fifteen small fields first. Based on the division,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administered to both the library employee and the students of SLIS (School of LIS) students in the city of Taegu, Korea and adjacent area. Two hundred and six usable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inferential statistics and SPSS software.

The major findings of the quantitative part of this study are:

- (1) Of the fifteen fields, information retrieval (IR) theory and its practical training field II (Online IR, Internet IR, etc.) was the most preferred one, and the respondents usually preferred practical training subjects by heuristic approach to the theoretical ones.
- (2) Lower academic level of study group such as Freshmen, Sophomore, Junior accepts librarian field work and its related subject as an important one, but Higher group such as Senior and graduate students recognize the subjects as an irksome ones.
- (3) A t-test reveals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SLIS student group and the library employee group in the evaluation of linguistic field's importance. (p=0.021) Also, a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m in the evaluation of linguistic field II such as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study. (p=0.001) The library employee group recognizes the field as a very important one compared with the student group.

This study including the above findings may be helpful for the reorganization of LIS curriculum that is suitable to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 이 논문은 1999년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진흥 특별연구과제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I. 현 황

최근 교육부는 학문의 질적 향상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부제를 적극 추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부터 출범한 국민정부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대학·학과의 평가등급제' 도입을 재촉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하여 이를 유도하면서 이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대학은 많은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은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위한 필요조치로 받아들여 지지만 사전준비나 연구가 부족하며,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수요자중심의 교육만을 지향하는 졸속적 정책수행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학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며,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지라도 이러한 사실에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어느 분야의 어느 특정학문도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매우 급속한 속도로 변화·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라 한다면,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축적, 검색하여 배포·이용하게 하는 것에 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문헌정보학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을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정보학, 그리고 서지학 및 기타분야로 나누어 그 전반적인 흐름을 국내외의 연구동향과 연계시켜 개괄한 후,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점진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도서관학이 '인쇄 또는 서사(書寫)된 기록류의 인식, 수집, 조직, 이용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이라면, 정보학은 이들 지식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본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인 바, 두 학문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작업과 함께 상호 중복되는 영역에 대하여도 파악하여 이를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서지학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역사학, 화학 등의 전공과 상호협력하는 정부기록보존 관리과정이 많은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에게 또 하나의 주요 취업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학문성을 띠고 있는 (Interdisciplinary) 현대적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들 (Foundational Disciplines)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분야들 (Related Fields of Study) 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미래 문헌정보

학의 발전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문헌정보학이 추후 여타의 학문영역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개편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바, 이는 급변하는 교육연구환경에서 문헌정보학이 효과적으로 정보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행하고 정보센터에서의 참고봉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미래 디지털환경하의 도서관변화형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문헌정보학 전공의 동향 및 현황을 살펴보면, 이에는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바, 양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본 과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수년 전부터 전국 4년제 대학에는 학부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영향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에 비교적 많은 수강생이 몰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문헌정보학을 제1전공으로 하여 36학점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2급정사서 자격증과 부전공으로 문헌정보학과 전공 21학점이상 이수시 부여되는 준사서자격증, 그리고 교직과목에서의 일정과목을 수강하고 전공과 교직과목에서 각각 3.0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였을 때 주어지는 중등학교 사서교사자격증은 특히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공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정보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OA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 인터넷정보검색사 등의 전산관련자격증에 대한 관심으로 실습을 위주로 하는 과목은 각 대학의 전산실습실이 협소하여 알찬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부정적 측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바, 8, 90년대 국내 문헌정보학 중흥기의 많은 인력수요에 비하여, 현재는 그 시기와는 달리 취업시장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종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전문직 사서로서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정보담당기자로서, 기업체, 연구소의 정보전문가로서, 정보산업체의 현장요원으로서 정보시스템, DB관리시스템, 정보네트워크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전문가로서,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뉴미디어의 활용과 관련된 정보기술전문가로서 등, 정보자료가 있는 곳이면 어떠한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한, 매우 다양한 졸업생의 진로를 감안하면, 현재 우리 졸업생들이 전공관련 직업을 구하기가 과거와 비교해서 오히려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설 교과목을 다양화시키면서 그 내용도 심화하여, 재학생들이 졸업 후 치열한 경쟁 속의 취업시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학부제하의 제한된 개설과목과 전공이수학점으로 인하여 이 많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없는 한계점에 부닥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다양성이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최대한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전공관련 교과과정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¹⁾ 그 개편의 방향은 이들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서, 현재 전국 각 대학의 40여개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인 서술방식과 계량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법을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와 현황에 근거한 문헌정보학의 최근동향을 간략히 서술하고, 정부의 새로운 기록보존정책에 부응하면서 전공졸업생의 취업진로도 넓힐 수 있는 기록보존 관련과목의 개설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기록보존인과 기록관리사의 정의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한 기록물 관리 교육 과정에 대한 고찰 및 그 필요성도 함께 논하였다. 추가하여 미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사서교사 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도 촉구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이를 저학년부터 일깨워줄 필요성에 대하여도 역설하였다.

이후 교과과정개편에 관한 연구는 '3. 영역의 분류' 에서 나뉘어진 3개 분야 15개의 영역에 근거하여 디자인되고 구성된 설문지 (<부록 1>참조) 를 활용하여 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교육자와 현장근무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이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 분석하고,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였다. 계량연구를 위하여 설문된 대상자의 구성과 사용설문지 및 이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설문대상자

1)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논문들에서 잘 보여지고 있기도 하지만, 2000년 7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문헌정보학분야 4개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살펴보면, 창원대의 양재한 교수는 '우리 문헌정보학의 학문과 현장'으로, 강남대의 조형진 교수는 '서지학의 과제와 전망'으로, 성균관대의 고영만 교수는 '정보기술과 정보화교육'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으며, 서울여대의 구분영 교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문헌정보학 핵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계량연구의 설문대상자는 대구지역 4개 4년제 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에서 1999년 2학기 현재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학부에 재학중인 1, 2, 3, 4학년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145명과,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 42명, 대구시내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학부제의 실시로 인해 1학년은 전공미정상태이거나 전공과목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 3월에 단지 1명만의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가능한 한 고학년을 위주로 설문 조사하였다. (참고로 <표 1>에서 분석된 응답자의 구성비도 중 재학생의 현황은 설문응답이 비록 2000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999년 12월 당시의 학년이나 과정으로 계산하였으며, 사서교육원 등 기타과정에서 재학중인 응답자는 1명도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에 대하여 추가로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표 1> 설문응답자의 구성비도 및 비율

구 분		응답자수	Cumulative Frequency	%	Cumulative Percentage
재학생*	1학년	1	1	0.5	0.5
	2학년	29	30	14.1	14.6
	3학년	49	79	23.8	38.3
	4학년	57	136	27.7	66.0
	대학원석사과정	8	144	3.9	69.9
	대학원박사과정	1	145	0.5	70.4
현장근무자	전공후 현장근무자	59	204	28.6	99.0
	비전공 현장근무자	2	206	1.0	100.0
Total		206		100.1	

* 응답자 중 재학생의 현황은 설문응답이 비록 2000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설문개시 시작 연도였던 1999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학년과 과정을 데이터 처리하였음.

2) 응답자중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중 1명과 대학도서관 사서 중 1명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도서관현장경력이 모두 10년 이상이었으며, 열람대출업무, 열람참고업무, 분류편목업무, 전자정보처리업무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비록 사서자격증은 없어도 충분히 도서관의 실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자료에 포함시켰다.

2. 설문지와 통계분석방법

사용된 설문지는 '2영역의 분류'에서 세분화된 분야 및 영역을 토대로 하여 15개 항목으로 나눈 후 Likert 5점 척도로 해당과목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나타내게 하였다. (① 거의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치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원래의 설문지 (전체 5쪽으로 구성됨) 내용에는 영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나, <부록 1>의 설문지는 이를 삭제한 후 간략판으로 첨부하였음을 밝혀 둔다. 통계방법으로는 주로 집중경향치를 비교하여 설문대상자의 인적구성분석 및 대상에 따른 과목별 선호도와 학생 및 현장근무자의 과목별 선호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표준편차와 t-test 및 유의도 검증법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및 신입사원에 요구되는 능력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Ⅲ. 영역의 분류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은 사실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이를 영역별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문헌정보학이란 학문명칭은 상당수의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까지의 주류명칭이었던 도서관학과 혹은 도서관교육전공 등의 명칭에서 정보학 부분을 추가하면서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교육과, 문헌정보학전공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는 현실이다.³⁾

문헌정보학 관련과목 또한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과목일지라도 매우 다양하게 명명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경영론」이란 과목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의학도서관, 전자도서관, 미디어센터, 학술정보센터 등 관종별도서관경영론으로 통칭될 수 있는 과목명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론이란 단어 대신에 운영론, 경영총론, 관리론, 경영특강, 경영원론 등을 붙여 넣기도 하고, 또 이를 조합하여 명명함으로써 약 40가지 이상의 유사명칭으로 각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자료조직」의 과목에서도 도서 및 비도서, 고전자료, 연속간행물, 전자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조직하는 방법에 관련된 약 30여개 정도의 과목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서관발달사」, 「도서관전산화론」, 「도서관발달사」, 「정보이용자연구

3) 2년제 대학 프로그램에서는 80년대의 도서관과에서 주로 문헌정보과로 명명되고 있으며, 2000년 교육부통계조사자료 중 '학과코드와 학과명'에 따르면 문헌정보전공, 문헌정보학과전공, 문헌학과, 도서관교육과, 도서관학전공 등으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론」, 「주제별서지연구」, 등의 과목에서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루고 인간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정의를 가진 사회과학의 속성으로 인해 여타의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특히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강좌계획에 의해 짜여진 내용이며, 개설한 대학의 특성에 따라 혹은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 따라 명명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이 때문에 분류상의 어려움이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일반화, 객관화하여 대부분의 문헌정보학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관련영역과 과목명으로 분류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합의, 찬성할 수 있는 분류방식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관련 연구 중 특히 정필모(1983)⁴⁾, 이종수(1994)⁵⁾의 논문 및 방식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문헌정보학자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도서관학분야와 정보학분야, 그리고 상당수 대학의 문헌정보학전공에서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서지학을 포함한 기타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5개씩, 모두 15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표 2>, <표 3>, <표 4> 참조) 분류된 3개 분야의 각 영역과 과목명은 추후 계량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활용하였다.

1. 도서관학분야

도서관학은 도서관현상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도서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서지, 봉사, 운영상의 제반지식이나 기법 등을 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사공철 등, 1996) 다양한 도서관현상을 고려하면 이를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음에 다루는 정보학과 서지학분야와 중복되어 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영역이나 과목 또한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계량연구를 위하여 편의상 분류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학입문 및 발달사영역, 정보매체 및 자료의 조직영역, 장서구성영역, 이용자봉사 및 독서지도영역, 도서관경영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이에 대한 이견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
- 4) 80년대 발표된 한국도서관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보처리기술 과목과 정보학이론 과목을 증설하고 주제별 전문화를 위한 과목의 특성화, 외국어 교육의 강화, 실습 및 현장실습의 강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 이종수(1994)의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으로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모형개발을 위하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13개의 큰 범주(category)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도서관학 및 정보학 개론, 정보매체자료조직 영역, 서지학영역, 장서구성, 정보학이론, 실무영역, 도서관 전산화, 정보서비스, 이용자 봉사, 도서관 경영, 정보처리가공, 정보검색, 기타, 여학분야 등이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면서 여타 문헌이나 논문에서 분류한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한 방식이며, 이에 관련된 과목 및 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입문 및 발달사영역에는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으로서의 도서관학개론과 정보학을 일부 포함하여 문헌정보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 문헌정보학의 입문적 성격을 띤 문헌정보학개론, 그리고 문자의 발생, 도서 인쇄술 및 출판의 발달과정을 개관하여 동서양의 도서 및 도서관발달사를 다루는 도서관사, 도서관문화사 등의 과목을 꼽을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와 정보자료의 중요성과 의의, 도서관의 의의와 기능,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의 발생배경과 체계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과목을 포함하였다.

정보매체 및 자료의 조직영역에는 자료분류 및 편목, 연속간행물조직, 비도서자료조직, 전자매체조직이론 등을 포함하였으며, 장서구성영역에는 장서개발론, 장서구성론, 자료선택구성특론, 문헌선택론, 주제별연구자료론, 주제별문헌정보 등의 과목을 포함하였다. 이용자봉사 및 독서지도영역에는 이용자연구론, 도서관문헌이용법, 정보추구행태론, 독서지도론, 독서교육론, 아동청소년자료 등을, 도서관경영영역에는 대학, 전문, 공공, 학교, 의학, 및 특수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정보시스템이론과 학술정보센터경영, 관중별도서관경영론, 도서관조직관리론, 도서관건축계획론 등의 과목을 이 범주에 넣었다. <표 2>는 이를 종합하여 2000년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도서관학분야의 관련과목을 영역별로 도표화한 것이다.

<표 2> 도서관학분야의 세부영역 및 관련과목

세부영역명	관련과목 및 유사과목명
입문 및 발달사 영역	문헌정보학입문,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총)론, 문헌정보학원론, 도서관학개론, 도서 및도서관사, (도서관)정보문화사, 출판및인쇄사, 출판학, 정보센터·도서관사, 문헌의역사와문화, 도서관사상사, 도서관문화사, 등
정보매체 및 자료의 조직영역	자료분류, 문헌분류법, 분류표의이해, 분류학, (문헌)정보자료분류론, 도서분류실습, 문헌분류학, 멀티자료조직, 목록학, 이론목록학, 정보목록론, 목록조직론, 특수자료(조직론), 자료편목론, 편목규칙의이해, 도서관편목실습, 자료조직(연습), 고전자료조직론, 연속간행물조직이론, 비도서(비책자)자료조직이론, 전자매체조직이론, 자료조직실무연습, 자료조직연습, 정부간행물조직이론 등
장서구성 영역	장서구성론, 장서구성법연구, 자료선택구성(특)론, 문헌선택론, 장서개발론, (장서구성)과 자료선택론, 주제별연구자료론, 주제별문헌정보(정보자료), 등
이용자봉사 및 독서지도 영역	이용자연구론, 특수이용자봉사론, 정보이용형태론, 고급정보이용자서비스론, 자료이용지도법, 동양문헌정보이용법, 한국문헌정보이용법, 도서관문헌이용법, 도서관이용교육, 정보수집과이용, 정보추구행태론, 정보이용자론, 이용자그룹별봉사, 이용자교육, 독서지도(방법)론, 독서교육론, 아동청소년자료, 아동도서, 청소년독서교육, 등
도서관경영 영역	도서관정보시스템이론(대학,전문,공공,학교,의학,특수도서관), 기업체기술정보시스템,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문헌정보시스템경영, 학술정보센터경영, 학술및전문정보센터, 문헌정보시스템전산화론, 도서관관리론,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론, 도서관경영(론), 도서관운영론, 도서관경영특강, 관중별도서관(대학,전문,공공,특수,전자도서관)경영론, 학교및공공도서관운영론, 도서관운영연습, 미디어센터경영, 도서관정책론, 도서관건축설비특강, 도서관조직관리론, 도서관건축계획론, 도서관인사및채정, 도서관건축과경영, 등

2. 정보학분야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정보학은 도서관학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공학적 측면에서 정보의 본질 및 특징, 정보의 흐름, 최대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정보학협회(ASIS)가 표현한 정보학의 영역, 목적, 및 정의에 따르면 “정보학은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수집, 조직화, 해석, 저장과 검색, 배포, 변형, 이용에 이르기까지 정보영역 전 분야에 현대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모든 단계에 관련되어져 있다. 일개 학문으로서, 정보학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관련된 시스템지식의 주요부분을 창출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정보학은 응용과는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순수과학적인 (이론적인) 요소와 정보서비스와 생산된 결과를 발전시키는 응용과학적인 (실용적인) 구성요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Griffith, 1980)

한계는 명확한 것 같지만 이를 광의로 해석하면, 정보학은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연구분야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약 130여개의 전공에서 학문명에 ‘정보(Information)’란 이름을 포함하거나 덧붙여 사용하고 있어서 학문명에 있어서는 가히 ‘정보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러한 현실에서 문헌정보학이 그 대부분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보를 다루는 정보학분야의 주류로서 남게 되기 위해서는 여타학문에서 다룰 수 없는 독창적이면서 특성화된 영역을 가지면서도 그들이 문헌정보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영역을 설정,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배경뿐만 아니라 전산정보학, 경영정보학, 매체정보학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연구와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도 하다. 영역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 장에서는 현재 문헌정보학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학 분야의 분류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보았다.

본 논문의 계량연구를 위한 영역분류의 첫 번째는 정보학이론 및 실무영역인데, 이 영역에는 정보학영역의 기초과목으로서 각종 문헌자료와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등의 작업과 정보

6) 2000년 교육부통계조사자료의 일부로서 ‘학과코드와 학과명’ 자료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전산정보학, 데이터정보학, 경영정보학, 산업정보공학, 등 종전부터 학문명에 정보를 포함하였던 학과들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정보학, 매체정보학, 인쇄정보학, 경상정보학, 경제정보학, 광고정보학, 국어정보학, 국제무역정보학, 국제문화정보학, 사진정보학, 상경정보학, 새우회계정보학, 수리정보학, 언론정보학, 영어정보학, 외국어정보학, 유통정보학, 의료정보학, 일본어정보학, 전산정보관리학, 전산정보응용통계학, 전산정보통신공학, 출판정보학, 컴퓨터정보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 통계정보학, 통상정보학, 행정정보학, 등 유사학문으로 달리 지칭되는 학과명을 포함하면 약 130여개의 전공명에서 정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관리 시스템을 분석, 평가하는 이론 등을 교수하는 정보학원론과,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대에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정보매체의 필요성과 정보화사회로 전이되는 과정과 결과를 이해시키는 정보와사회 등의 과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구축론, 정보통신론 등의 실무영역의 정보학과목들을 포함시켰다.

도서관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영역에는 도서관전산화론, 도서관정보네트워크이론, 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운영론, DB구축론, DB이용론, 등을 포함시켰으며, 정보서비스영역에는 정보봉사론, 참고정보원, 전자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평가론, 주제별정보서비스론, 등의 과목을 포함시켰다. 정보검색이론 및 실습영역에는 정보검색시스템론, 정보검색특강, 정보검색비교론, 정보검색 및 연습, 온라인정보검색, 인터넷정보검색 등을, 정보처리와 가공영역에는 정보처리론, 전산정보처리법, 정보처리기술론, 정보가공론, 색인초록작성법, 초록실무, 시소러스개발론, 등의 과목을 이 범주에 넣었다. <표 3>은 이를 종합하여 2000년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학분야의 관련과목을 영역별로 도표화한 것이다.

<표 3> 정보학분야의 세부영역 및 관련과목

세부영역명	관련과목 및 유사과목명
정보학이론 및 실무역역	정보학(의 실제), 정보학개론, 정보학원론, 정보학입문, 정보와사회, 정보정책(전략)론, 정보관리기초, 정보와매스미디어, 정보사회론, 정보매체론, 이론정보학, 계량정보학, 정보와매체, 정보사회학특강, 정보시스템(구축론), 정보공학(특강),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기초, 정보분석론, 정보통신론, 정보와컴퓨터, 하이퍼미디어정보시스템, 정보네트워크(연구)론, 인터넷정보(활용)론, 정보전산처리연습, 등
도서관전산화 및 DB영역	도서관전산화입문, 도서관전산화론(자동화론), 도서관정보네트워크이론, 사무자동화이론, 도서관전산화응용론, 온라인네트워크실무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도서관정보전산시스템론, 도서관홈페이지운영연습, 전자도서관시스템, 네트워크운영,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입문, 컴퓨터실습, 컴퓨터학습론, 전자계산개론, 전산학개론, 프로그래밍(기초), 프로그램개발론, 프로그램운영론, CD-ROM검색, 광화일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DB구축론, DB운영론, DB탐색실습, 온라인DB검색실습, 문헌DB론, DB시스템, DB탐색연습, DB이용론, 온라인탐색, 등
정보서비스영역	정보봉사론, 참고(정보)봉사론, 참고업무특론, 정보봉사(특수)연구, 참고문헌봉사론, 참고정보원, 도서관정보봉사의기초, 참고및정보업무, 참고정보서비스론, 전자정보서비스론, 주제별정보서비스론(인문,사회,자연,과학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평가)론, 정보서비스연습론, 정보서비스의이해, 문헌정보서비스실무론, 등
정보검색이론 및 실무역역	정보검색(시스템)론, 정보검색이론, 정보검색특강, 정보검색비교론, 정보검색언어론,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정보검색법, 정보검색및연습, 인터넷정보검색, 온라인탐색, 등
정보처리와 가공영역	정보처리기초, 정보처리(이)론, 정보처리법, 전산정보처리, 정보처리연습, 정보처리기술(론), 컴퓨터정보처리법, 정보가공론, 색인초록(이)론, 과학기술색인·초록실무, 색인초록법, 색인·초록(작성)법, 시소러스개발론, 색인및시소러스, 자동색인법 등

3. 서지학과 기타분야

서지학은 도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비평, 연구하여 기술하는 학문으로서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전적 및 그에 관한 연구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공철 등, 1996) 일명 '도서학' 혹은 '문헌학'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서지학은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전공에 주요분야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효율적인 기록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는 결코 도서관학과 정보학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이 뒤진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서지학분야의 전임 교원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어학영역, 연구방법영역 및 기타영역과 함께 서지학과 기타분야의 범주에 넣었다. 역시 문헌정보학자에 따라 이견이 많겠지만,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면서, 이미 각 5개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서관학분야 및 정보학분야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분류방식이었으며, 이에 관련된 과목 및 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서지학영역은 이론서지학과 주제별서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이론서지학에는 서지학, 서지학개론, 특수서지, 고문서학특강, 한국서지, 중국서지, 일본서지, 동양전적 등의 과목을 포함하였으며, 주제별 서지는 과학기술정보론, 인문학서지정보론, 주제별정보원, 형태서지학론, 체계서지학론, 원문서지학론, 등의 과목을 포함하였다.

어학영역에는 영서강독, 문헌정보학영어, 영서특강 등의 영어로 된 원서해독능력을 배양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일서강독, 일본자료강독, 한서강독, 고전자료강독, 한문강독 등의 한서 및 일서와 관련된 과목도 포함하였다. 기록보존⁷⁾ 및 연구방법영역에는 정부기록물관리론, 정부기록물과 기록관리, 기록보존학특강 등의 과목과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도서관학연구법 등의 과목을 포함하였다.

기타영역에는 저적소유론, 도서관평가론, 문헌조사연구법, 커뮤니케이션론, 문헌비평, 도서관업무론, 졸업논문 등 매우 많은 유형의 과목이 있으나 모두 문헌정보학전공의 주요과목이라는 볼 수 없으므로, 요즘 특히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copyright)과 관련된 저작권론 및 졸업후 진로의 차이에 의해 재학생별로 그 선호도가 크게 엇갈리는 사서실습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4>는 이를 종합하여 2000년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서지학 및 기타분야의 관련과목을 영역별로 도표화한 것이다.

7) 특히 곧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아직 관련과목이 개설된 대학이 극소수인 현시점에서, 본고는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생들의 보다 확장된 취업진로를 고려하는 의미에서 기록보존 관련과목 및 이의 개설에 관한 설명은 '4. 기록보존 관련과목'의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표 4〉 서지학과 기타분야의 세부영역 및 관련과목

세부영역명	관련과목 및 유사과목명
서지학영역 I (이론서지학)	서지학, 서지학개론, 특수서지, 동양서지학, 동양문헌서지의이해, 고전자료의이해, 고문선독, 고문서학특강, 한국서지, 중국서지, 일본서지, 한중서지, 한서자료, 동양전적, 한국전적, 한적선독, 중국전적, 서지학자료선독, 서지학의이해, 등
서지학영역 II (주제별서지)	인문정보원론, 사회정보원론, 자연정보원론, 과학기술정보원론, 인문사회과학문헌정보, 인문학서지정보론, 주제서지론, 주제별서지(연구), 주제별정보원, 형태서지학론, 분석서지학론, 체계서지학론, 계량서지학론, 원문서지학론,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과학기술서지, 의학서지, 등
어학영역	영서강독, 일서강독, 한서강독, 문헌정보학영서강독, (문헌정보학)영서특강, 문헌정보학영어, 문헌정보학일어, 문헌정보학독, 고전자료강독, 일본자료강독, 원서특강, 한문강독, 실무기초영어, 한문이해, 등
기록보존 및 연구방법영역	정부기록물관리, 정부간행물과기록관리, 문헌보존공학, 문서관리, 사무자료관리, 기록보존학특강, 도서관학연구법,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연습, 문헌정보학특강, 정보학연구방법론, 등
기타영역	지적소유론, 저작권론, 출판과저작권법, 도서관평가론, 도서관평가법특강, 문헌조사연구법, 첨단정보와정보조사제공학의이해, 한국학정보의활용, (문헌)커뮤니케이션론, 정보커뮤니케이션론, 매스컴원강, 문헌비평, 실기교육방법론, 도서관업무론, 사서(업무)실습, 도서관실무실습, 졸업논문, 등

IV. 기록보존 및 사서교사 관련과목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와 기록매체, 그 유통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하는 바, 그것은 문헌정보학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기록보존이나 출판 등의 인접분야로 전문영역을 확대하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Martin, 1994)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그 범주 내에 이미 도서관전문직, 정보검색전문직, 기록보존전문직, 출판전문직 등의 양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이며, 급격히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일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전공자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은 기록보존 관련과목의 개설에 매우 인색한 측면이 있다. 학부제하의 제한된 개설가능과목 수가 문제로 남기는 하지만, 현재학생들과 이후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는 선택과목일지라도 교과과정에 넣어 둠으로서 추후 시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연구자는 적극 주장하고 싶다.

1. 기록관리사 및 기록물관리법

기록보존이란 '기록물 (Archives & records)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록보존인은 여러 유형의 기록보존기구에서 기록물을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록보존사서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록보존인 및 기록물관리사 (records manager) 로서 소정의 기록보존 전공과정을 이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한다. 권기원(1997), 김상호(1994) 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산사서와 문헌비평사서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 전문사서에는 주제전문사서 및 사서교사와 함께 기록보존사서도 하나의 전문사서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사는 아직 그 용어를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는 하지만, 정부 및 기록보존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록보존인을 지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정부의 기록보존 주관부처에서 기록보존인의 양성을 위해 문헌정보학과에도 기록보존 관련교과의 개설을 요청한 바 있으며, 수년 전 정부기록보존소 당국은 기록보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의 정비를 주장한 바 있다. (정부기록보존소, 1995)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인식제고와 수요창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병행되지 않아서 최근에야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1999년은 우리 나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해였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물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올해부터는 시행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분야는 앞으로 큰 변화가 기대된다. 실제 현재까지는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및 공개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었다. 다만 공무수행에 관한 공문서를 관리하는 법령으로서 사무관리규정만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공문서 보관의 기능은 있었지만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능은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로 중요국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요문서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파기·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는 전담정부기구나 예산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거나 배치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기록물관리법은 이러한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전체 6장 32조의 본문과 부칙 2조로 되어 있다. 이 법률에는 기록물관리를 전담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및 이들에 관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한국의 기록물 관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인 올해부터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한 밝은 전망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며, 지난 세기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인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이 기대되어지는 바, 문헌정보학계도 이를 환영하며,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2. 기록물관리 교육과정 및 필요성

진술한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관리에 가장 필요한 학문 중 하나인 문헌정보학도 정부의 효율적 기록물관리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취업시장개척을 위해서도 이에 관심을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학계도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가 기록물 보존에 관련된 교과목개설은 학부에서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채용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제 하에선 매우 어렵다면 학부에선 매학년 한 과목이하로만 개설하고,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과정이라도 반드시 한 과목이상을 개설하여 학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개설과목에 대한 논의는 추후 시험과목이 정해지고 체계화될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겠지만, 개괄적으로 본 과정과 관련된 과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시험을 준비하는 학문의 전공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자료보존관리를 위한 분류와 정리, 검색 및 배포 등의 작업은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되며 권기원 등(1997), 김상호(1999) 에서 논의된 기록보존사서가 이를 담당하여야 되겠지만, 이의 서지·역사학적인 고찰과 보존인의 고대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학 쪽에서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보존자료의 영구적 보관과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물리적 처리를 위해서는 화학을 전공한 전문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고찰하면, 둘 혹은 세 개의 전공이 다학제적인 편제 (Interdisciplinary)를 유지하며 상호보완적으로 본 법률 및 이에 따르는 채용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상호(1999)가 그의 저서에서 기록보존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할 교과를 기초영역과 기록물영역, 기록물관리영역, 기록보존학 관련영역으로 나누어 전공교과로서 제시한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 5> 와 같다.

(표 5) 기록보존직 교육과정용 전공교과의 4개 주요영역

영역	영역별 교과과정 혹은 교과목명
기록보존학 기초영역	기록보존문화사, 기록보존학개론
기록물영역	한국고문서론, 특수매체기록, 정부기록물, 민간기록물, 문서원문강독
기록물관리영역	기록물선택론, 기록물조직법, 기록보존론, 기록보존소경영론, 기록보존자동화론, 현장조사실습
기록보존학관련영역*	(1) 연구조사방법론, (2) 문헌정보학, 정보학, (3) 커뮤니케이션론, 매스미디어론, 출판학, (4) 역사학, 한국사, 사료편찬론, (5) 법률학, 저작권법, 한국법제론, (6) 정치학, 외교학, 한국정치제도론, (7) 행정학, 한국행정제도론, (8) 경영학, 한국경제론

* 기록보존학의 영역은 1개의 방법론과 7개의 사회과학영역으로 나누어, 다시 관련 교과목을 기술함.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교과과정은 문헌정보학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유사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좀더 많은 졸업생들이 정부기록물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과 강사들이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편에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나라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가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시스템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호, 1998)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관리사를 위한 자격시험은 2000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헌정보학과와 프로그램도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학과 출신의 졸업생들의 진로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권장되어야 한다고 본다.⁸⁾

그러나 현 학부제하의 한정된 이수학점 체계하에서 각 대학마다 따로 한 분 이상의 전임교수가 꼭 필요할 것인지는 의문시되지만, 과목을 한 과목 혹은 그 이상 개설하여 재학생들에게 졸업후의 취업진로의 폭을 넓혀 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같은 대학 내에서 혹은 지역내 타대학의 전임교수에게 강좌를 부탁하거나, 어렵다면 관련 전공의 시간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3. 사서교사 자격증

문헌정보학 전공학생의 취업을 위한 미래의 큰 시장을 논하면서 사서교사시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교직과정을 함께 이수하여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어 있다. 그러나 말로만 '열린교육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의 무성의와 초·중등학교의 예산부족,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고작 10명 남짓의 사서교사들만이 신규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계와 도서관계는 그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하고는 있지만, 전망이 반드시 밝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IMF구제금융을 받게된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부의 재정적 여건도 호전되면 사서교사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본다.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당 1명씩의 사서교사를 필요로 하거나, 그 절반의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

8)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기록관리사 (archivist) 로서 문헌정보학과 역사학 등의 분야에는 최소한 600여명의 취업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더라도 현재의 중등학교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와 향후 최소 10년간의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자는 취업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2학년 진급시 문헌정보학을 제 1전공으로 선택하려는 학부제하의 신입생들에게 이에 대한 관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학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⁹⁾ 학생들에게 기타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사서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지 못한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전공 프로그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인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졸업생들이 사서교사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계량적연구의 분석결과

앞서 문헌정보학의 최근 동향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비교적 원론적이었던 주장에 추가하여, 본 장에서는 교과과정개편에 관한 내용을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시도하여 이를 분석해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연구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들과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관계로 본 장은 그 상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분석 후 발견된 내용 중, 특히 선호도가 높은 영역 및 과목들과 특이사항만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1. 발견사항

영역별, 교과목별 선호도조사는 언뜻 보기에는 그에 대한 인기투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미래 취업을 위해 혹은 학문적 성취를 위해 매진하는 집단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과목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교과목 개정의 핵심일 것이다. 영역별 선호도의 비교에 있어서 1학년, 대학원박사과정 및 비전공현장근무자 집단은 수집된 표본이 숫자가 매우 적은 관계로, 학년, 과정, 전공유무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았으

9) 전공학점과 교직과목의 종합평점을 각각 3.0 (B0) 이상으로 유지시키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사서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며, 재학생 집단과 현장근무자 집단만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주어 분석한 발견사항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역별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보검색이론및실습영역 특히 영역II(온라인정보 검색, 인터넷정보검색 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2위:도서관전산화및DB영역, 3위:정보서비스영역, 4위:어학영역, 5위:도서관경영영역) 정보검색이론및실습영역II 뿐만 아니라, 도서관전산화및DB영역I, 정보학이론및실무영역II, 정보서비스영역II, 주제별서지영역II, 등 실무 및 실습위주 혹은 그에 가까운 과목이 많이 포함된 영역을 선호하였는데, 이 결과는 재학생과 현장근무자의 응답이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정보학분야의 과목에 있어서는 미래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습을 통하여 익히는 경험적 접근(heuristic approach)에 의한 실습위주의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이론적 수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도서관학분야 및 서지학과 기타분야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2) 저학년(1, 2, 3학년)의 경우에는 기타영역 II(사서실습, 도서관실무연습 등)를 중요한 과목으로 선택한 바, 이는 전체적인 교과과정이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서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것이 요구되는 지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고학년(대학원과정포함)의 경우에는 이를 현장실습기회로 여기기 보다 실습기관(특히 공공도서관)에서 평소 미뤄 두었던 잡다한 일(업무)들을 실습학생의 노동으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좀 귀찮은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 (3) '재학생집단과 현장근무자집단의 영역별 선호도의 차이검증'에서는 t-test를 사용하여 유의도를 비교한 바, 가장 많은 차이가 난 것은 어학영역이었으며($p=0.021$), 특히 어학영역 II(일서강독, 한문강독 등)의 차이가 많았다($p=0.001$) 현장근무자집단의 경우엔 어학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 이를 2번째로 선택한 반면, 재학생집단은 7번째로 선택하여 양집단간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학생집단의 경우 영어 등의 어학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큼은 아니며, 특히 일어나 한서의 경우(어학영역II)는 더 많은 중요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수 및 강사들은 재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어학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근무자의 견해를 충분히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4) 설문지 ③번 항목에서 문의된 '전산관련 필요 자격증'의 경우, 비록 국가 공인자격증도 아니지만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증이 57.8%(119명)의 선호도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정보처리기사, 3위:OA기사, 4위: 워드프로세서, 기

타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사서자격증¹⁰⁾) 역시 인터넷을 모르면 넷맹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역사는 가장 짧은 자격증이지만 전공에 대한 공부와 도서관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시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 (5) 설문지 ④번 항목에서 문의된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시 되는 것'에 대한 문의에서, 컴퓨터활용능력에 31.1%(64명)가 표기함으로써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2위:서비스정신, 3위:인터넷정보검색능력, 4위:외국어능력) 서비스정신이라고 응답한 표본도 30.1%(62명)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재학생집단이 이와 같이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은 업무를 직접 접해보지 못한 막연한 생각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같은 1순위로 응답하긴 하였지만 훨씬 높은 비율로 표기한 현장근무자가 컴퓨터 활용능력이라고 한 응답(49.2%: 30명/61명)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련된 의견'을 논술형으로 듣고자 하였던 설문지 ⑤번 항목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다. 가장 빈번하였던 내용은 재학생의 경우, 사서실습 등 현장위주의 과목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동시에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렇지만, 현장근무자와 대학원생들은 저학년시에 수강하면 유용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다.¹¹⁾
- (7) 설문지 ⑤번 항목에서의 다른 결과는 이미 앞서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 일어, 한문 등의 과목에 대하여 현장근무자는 그 중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재학생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선호도 혹은 그 중요성의 인지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¹²⁾ 또한 재학생, 현장근무자 양 집단 모두,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봉사 및 정보서비스정신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8) 설문지 ⑥, ⑦번 항목은 단지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설문지 ⑧번 항목에서 문의된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1)에서 서술한 과목별 선호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10) 전산관련자격증을 잘못 이해한 응답으로 2명이 이와 같이 답하였다.

11) 물론 학사행정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차라리 저학년(2학년)때 수강하게 되면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전공학문에 대한 개념을 미리 세우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한 후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12) 학생의 경우 영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큼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고, 한문이나 일어 등, 기타 어학에 관해서는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어의 중요성 외에도 한문이나 일어 등, 기타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종합적 결론 및 첨언

문헌정보학 교육의 수요자(피교육자)와 교육을 받은 현장실무요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장기간동안 교육을 담당해 온 공급자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또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경험과 많은 연구결과물 및 전공분야에 대해 박학한 지식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적 흐름을 읽기 위해 학회지나 정기간행물을 열독할 뿐만 아니라, 학회활동참가 등을 통해 가장 빨리 학계의 동향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들의 타견은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교육개혁형태가 수요자중심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자인 학자들의 의견은 그들의 장기간 현장교육경험과 식견에 오히려 이기적인 발상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매도되면서, 간과 혹은 무시까지 당하는 현실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문헌정보학교육의 피공급자 및 현장근무자들의 의견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는 미래연구과제로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다시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1. 발전사항’을 종합하고 누락된 부분을 서술하면, 먼저 재학생 응답자들은 실습 및 현장 위주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컴퓨터 관련 과목과 실습에 대한 욕구를 표출한 응답의 빈도가 많았다. 또한 학년에 맞는 교과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보서비스 관련과목을 강화시켜줄 것을 많이 요청하였다.

현장근무자도 현장실습의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컴퓨터와 정보서비스관련 과목의 증설 및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학분야의 교과목도 많이 개설하고 재학생들에게 많이 수강할 것을 적극 추천하고 권하였다. 특히 고학년들이 귀찮은 과목으로 인식하는 도서관현장실습 등의 과목을 저학년에서 실시하는 방안은 학사행정상의 난제와 현장에서의 용인문제 등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전공관련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시 되는 것에 대한 응답에서, 현장근무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컴퓨터 활용능력이라고 응답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문헌정보학전공의 재학생들이 전산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정보검색사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기사, 사무정보기기응용(OA)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등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취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화사회의 첨병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헌정보학계의 현장과 재학생들 사이에 선 영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전공이며 영어에 자신이 없어 문헌정보학으로 전공을 정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다. 국제화 시대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너무 진부한 것 같지만 현장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는 재학생들의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점과 한문과 일어의 필요성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어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깨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계량적 연구부분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에 첨언한다면,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의 문헌정보학처럼 대학원 중심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절실하며, 석사과정 뿐만 아니라 최고급 과정인 박사과정의 개설은 모든 대학에서 여건이 허용된다면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그리고 선진국의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게,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을 거의 두지 않고 선택과목의 수를 많이 설정할 뿐만 아니라, 매학기 개설 교과목을 고정시키지 않고 수시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국내 대부분이 대학에서 시행되고있는 학부제로 인하여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을 결정할 때,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법의 교과목설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VI. 제 언

문헌정보학은 기본적으로 다학문성을 띠고 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특히 정보학 분야는 그러하다. 예를 들면,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단 문헌정보학분야의 정보학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산정보처리학을, 사적인 권리의 법률적인 보호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는 민법상의 특별법인 저작권법을 전공한 법학자와의 다학제적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를 연구하고자하는 학자들이 충분한 지식과 배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문간의 폐쇄성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학원생들도 타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에 많은 관행적,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다. 문헌정보학분야도 이렇게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긴 하겠지만 충분한 사전연구와 함께,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경영정보학(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산정보학(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언론정보학(Communication) 등과 상호협력하여 제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문헌정보학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대학교내부간에서와 외

13) 2000년 1학기 현재, 문헌정보학 박사과정프로그램은 서울 5개교(상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와 지방 4개교(경북대, 계명대, 부산대, 전남대)에 개설되어있다.

부에서의 학문간 단절과 상호 폐쇄적인 학문적 환경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상존하여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여건이 성숙되면 점진적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부가하여 교과과정에 관련된 글을 쓰는 데 관련된 내용을 약간만 부연한다면, 본 논문의 주제로서 문헌정보학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이를 서술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으며, 충분한 선행연구조사분석 및 관련기관자료 혹은 인터넷상의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열독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논문은 어떤 연구를 통하여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효율적 대안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직선적으로 논문에서 피력하는 것은 해당 학계내 전공관련 학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재 국내학계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 시점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디지털 환경 하에서 지속되는 급속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한 효율적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도, 또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일찍부터 이미 이를 잘 수용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열어 놓았지만, 피교육자 및 현장근무 졸업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면 보다 효율적인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효율적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내 설문조사 후 발견사항으로서 '5. 교과과정개편에 관한 연구'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4. 기록보존 및 사서교사 관련과목'의 주관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에 부가하여 통계조사된 피교육자,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므로 객관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 및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부연한다면, 본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피교육자들과 현장근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에 대한 분석내용의 일부는 학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가 수요자만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문헌정보학교육 공급자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하므로 문헌정보학교육자들의 견해는 미래연구과제로 설정함과 동시에, 본 연구결과물도 추후 공급자위주의 연구와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설문대상자의 설정, 영역의 분류방식, 분석방법론 등의 차이에 의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발견사항 및 결론, 제언은 추후에도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참고하면서, 교과과정 개편시에는 관련전공교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1998. pp.3-50.
- 권기원, 방준필. “도서관자동화에 따른 사서의 전문영역 확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3); 1997. 9. pp.147-164.
-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7집. 1994. 247-260.
<http://speed.nanet.go.kr/nal/3/3-1-4/nal980101.htm>
- 김상호. 『기록보존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270p.
- 김성수.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8집 (1998 여름호). pp.355-384.
- 박일종 등. 『사회과학 전공별 동향과 전망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사회과학 진흥 특별연구과제보고서) 2000.
- 엄영애. “도서관계의 경향과 사서직교육의 변화” 『도서관학논집』 제29집 (1998 겨울호). pp.141-170.
- 이종수. 『문헌정보학 분야의 과정별 교과과정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205p.
- 정부기록보존소. 1995. “외국의 기록보존전문교육과정” 『기록보존』 8호. pp.155-162.
-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개정판)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83. 300p.
- 최성진.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1989. 108p.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 한복희. “학부제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1998. pp.5-30.
- Griffith, Belver C. 『Key papers in information science』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Inc., 1980.
- Martin, Robert Sidney. 1994.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ducation for librarians and archivis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vol.57 (Summer 1994).

〈부록〉 계량연구용 설문지

일자: 년 월 일

- ① 현 재 :
- | | |
|--------------------|-----------------|
| (1) 재학생 | (2) 재학중 현장근무자 |
| (3) 졸업후 전공관련 현장근무자 | (4) 비전공관련 현장근무자 |
| (5) 기타 | |
- (※ 현장근무자로서 재학중이 아니면 ③번으로 바로 가주세요)

② 재학생이라면 학년이나 과정을 표시해 주세요.

- | | |
|----------------------|--------------|
| (1) 1학년 | (2) 2학년 |
| (3) 3학년 | (4) 4학년 |
| (5) 대학원 석사 | (6) 대학원 박사과정 |
| (7) 사서교육원 등 기타(과정명 : |) |

〈 재학생 및 현장근무자 공동 응답부분 〉

③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거나 필요할 것 같은 전산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 (2) 워드프로세서 |
| (3) 인터넷정보검색사 | (4) OA기사 |
| (5) 기타(자격증명 : |) |

④ 현장 신입사원에게 있어 학과관련 능력 외에 가장 필요시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외국어 능력 | (2) 컴퓨터 활용능력 |
| (3) 인터넷 정보검색 능력 | (4) 서비스정신 |
| (5) 기타(|) |

⑤ 기타 귀하의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련된 고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장근무지만의 응답부분 〉

⑥ 현재 도서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모두 ○표)

- | | | |
|----------------|-------------|----------|
| (1) 수서업무 | (2) 분류업무 | (3) 편목업무 |
| (4) 연속간행물 관련업무 | (5) 열람/참고업무 | (6) 대출업무 |
| (7) 기타() | | |

⑦ 현장에서 근무하신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년 ()개월

⑧ 문헌정보학 전공관련으로 재교육을 받으신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다음 장의 영역 부분에서 골라주십시오.)

- | |
|---------|
| (1) () |
| (2) () |
| (3) () |

영역 및 과목별 선호도 조사 part

(※ 원 설문지에는 각 영역별로 더 많은 과목명과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였음 - 전체 5pages)

다음의 교과과정에 있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영역명	관련과목 및 유사과목명	거의 필요 없다	별로 필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도서관학입문 및 발달사영역I	문헌정보학입문, 도서관학개론 등	①	②	③	④	⑤
2	도서관학입문 및 발달사영역II	도서관사, 도서관문화사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보매체 및 자료의 조직영역 I	자료분류, 문헌분류학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보매체 및 자료의 조직영역 II	자료편목론, 연속간행물조직이론 등	①	②	③	④	⑤
5	장서구성영역 I	장서구성론, 장서개발론 등	①	②	③	④	⑤
6	장서구성영역 II	주제별연구자료론, 주제별문헌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7	이용자봉사 및 독서지도영역 I	이용자연구론, 도서관문헌이용법 등	①	②	③	④	⑤
8	이용자봉사 및 독서지도영역 II	독서지도론, 아동청소년자료 등	①	②	③	④	⑤
9	도서관경영영역 I	도서관경영론, 대학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10	도서관경영영역 II	도서관조직관리론, 도서관건축계획론 등	①	②	③	④	⑤
11	정보학이론 및 실무영역 I	정보학이론, 정보외사회 등	①	②	③	④	⑤
12	정보학이론 및 실무영역 II	정보시스템구축론, 정보통신론 등	①	②	③	④	⑤
13	도서관전산화 및 DB영역 I	도서관전산화론, 디지털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14	도서관전산화 및 DB영역 II	프로그램운영론, DB구축론 등	①	②	③	④	⑤
15	정보서비스영역 I	정보봉사론, 참고정보원 등	①	②	③	④	⑤
16	정보서비스영역 II	전자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평가론 등	①	②	③	④	⑤
17	정보검색이론 및 실습영역 I	정보검색시스템론, 정보검색특강 등	①	②	③	④	⑤
18	정보검색이론 및 실습영역 II	온라인정보검색, 인터넷정보검색 등	①	②	③	④	⑤
19	정보처리와 가공영역 I	정보처리론, 전산정보처리 등	①	②	③	④	⑤
20	정보처리와 가공영역 II	정보가공론, 색인초록법 등	①	②	③	④	⑤
21	이론서지학영역 I	서지학개론, 고문서학특강 등	①	②	③	④	⑤
22	이론서지학영역 II	한중서지, 동양전적 등	①	②	③	④	⑤
23	주제별서지영역 I	과학기술정보론, 인문학서지정보론 등	①	②	③	④	⑤
24	주제별서지영역 II	주제별서지연구, 원문서지학론 등	①	②	③	④	⑤
25	어학영역 I	영서강독, 문헌정보학영어 등	①	②	③	④	⑤
26	어학영역 II	일서강독, 한문강독 등	①	②	③	④	⑤
27	기록보존 및 연구방법영역 I	정부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특강 등	①	②	③	④	⑤
28	기록보존 및 연구방법영역 II	도서관학연구법,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등	①	②	③	④	⑤
29	기타영역 I	지적소유론, 저작권론 등	①	②	③	④	⑤
30	기타영역 II	사서실습, 도서관실무연습 등	①	②	③	④	⑤